



“기회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”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# 해명자료

제공일 : 2012. 11. 30.  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
과 장 : 박 신 철  
사무관 : 김 종 모  
전 화 : 02-500-2377  
쪽 수 : 2  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2년 11월 3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‘日 방사능 굴’ 괴담 도는데…뒷집 지는 정부 기사 관련 해명

‘12.11.30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「‘日 방사능 굴’ 괴담 도는데… 뒷집 지는 정부」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### 【 보도요지 】

- 일본에서 수입된 방사능 가리비 껍데기가 남해안의 양식 굴 모찌기에 사용됐지만 이렇게 생산된 굴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정부의 대처는 전무했다고 하면서
- 방사능 오염 가리비 껍데기가 별다른 조치 없이 우리나라 남해안 양식에 사용됐고 여기에서 자란 굴이 밥상에 오르고 있으며,
- 인터넷 게시판에는 미국에서 한국 굴을 전량 판매금지하고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까지 돌고 있음
- 농림수산식품부 경역검사본부에서는 당시 논란이 일던 수입산 일본 가리비껍질과 굴 유생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검사를 실시 하였지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,

- 굴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어느 부처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음

### 【 해명내용 】

-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역사본부가 굴 양식장에서 사용 중인 일본산 굴 채묘용 가리비 껍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- 한편, 관세청에서는 일본에서 굴 채묘용으로 수입되는 가리비 껍질에 대하여 산지증명서와 방사성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(8.1~)하여 통관 단계에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,
  - 양식장에서 사용된 가리비 껍질은 일본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나 업체의 확인서를 받고 수입하여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- 농식품부에서는 굴 양식장에서 패각 및 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산단계에서의 방사능 관리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.
  - 아울러 수입항에서도 방사능 검사기를 설치하여 일본산 가리비 채묘용 껍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 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미국의 국내산 굴 수입 중단조치는 굴 생산 해역의 육·해상 오염원 관리 미흡에 따른 잠정 중단 조치로 방사능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.